



광주청소년 음악페스티벌 '2009 광주청소년 음악페스티벌' 본행사가 14일 오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1318 유적배틀, 창작곡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사이니 등 인기가수들도 출연, 분위기를 띄웠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무등산 옛길 1구간 복원 한 달 1만 2천여명 찾았다

원효사~서석대 월말 개방

지난달 15일 복원·개방된 동구 산수동에서 원효사까지의 '무등산 옛길 1구간'에 한 달 동안 1만 2천 여명의 시민들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개방 이후 평일에는 300~400명, 주말에는 하루에 1천 5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광주시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이처럼 1구간 이용 등산객이 급증하자 원효사~제철유적지~충장공유적지~원효계곡~서석대까지 4.12km의 2구간을 이달 말 개방할 예정이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이달 말 2구간 개방준비기간에 각 구간별로 설화나 구문 등의 옛이야기를 통해



장소 별로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작업을 진행시켜 생태문화탐방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3대를 추가 도입했다.

광주시가 최근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3대를 추가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모두 15대로 늘었으며, 시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 오는 9월까지 5대를 추가 도입해 모두 20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10대씩 늘어나갈 계획이다.

승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지난해 10월 8대로 운영을 시작해 올해 2월 4대를 증차해 모두 12대로 운영돼 왔으며, 5월 말까지 모두 1만5천677명, 1일 평균 65명의 장애인과 노인이 이용했다.

시는 또 이와 함께 전용면적 60㎡ 이하 19가구 미만 다가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맞춰 세

당당 1대에서 0.7대로 기준을 완화하

기로 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

주택법 등의 개정에 따라 주택 건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4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신설된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소음, 배치, 각 층간 충격음 등 거주여건과 관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시켜 사실상 거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소지도 높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7분 해질 19시 48분 달출몰 -1시 -분 달짐 11시 49분

소나기를 피하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며, 곳에따라 소나기가 오는 지역도 있겠다.

광주	맑음	16/29°C
목포	맑음	17/25°C
여수	맑음	18/25°C
완도	맑음	16/28°C
구례	맑음	15/30°C
해남	맑음	15/28°C
장흥	맑음	15/28°C
고흥	맑음	15/28°C
순천	맑음	17/29°C
영광	맑음	14/26°C
진도	맑음	15/28°C
전주	맑음	15/28°C
남원	맑음	14/28°C
옥산도	맑음	17/23°C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서	0.5~0.5m	목포 06:42	12:13
연안	서~서	0.5~1.0m	19:05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남서	0.5~1.0m	여수 01:21	07:57
연안	북동~남서	0.5~1.0m	13:57	19:47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7/30	17/30	18/30	19/29	20/26	20/26

원룸촌 주차난 더 심해진다

설치기준 세대당 1대에서 0.3~0.7대로 대폭 완화

광주시, 7월 조례안 상정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원룸 등 소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원룸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원룸형(30㎡ 이하), 기숙사형(10㎡ 이하)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기존 세대당 1대에서 각각 0.5대 이상, 0.3대 이상으로 주차장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시는 또 이와 함께 전용면적 60㎡ 이하 19가구 미만 다가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맞춰 세

당당 1대에서 0.7대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

주택법 등의 개정에 따라 주택 건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4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신설된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소음, 배치, 각 층간 충격음 등 거주여건과 관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시켜 사실상 거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소지도 높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추후 주차난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은 역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무리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 지난달 4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7월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에 고기간의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이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

영어회화 전문 강사

광주·전남 정원 미달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공모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청자가 모집정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모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청자가 광주는 204명 모집에 167명, 전남은 208명에 170명이 신청해 미달됐다. 초등은 광주와 전남이 91명과 98명 모집에 각각 93명, 103명이 응시해 겨우 정원을 넘겼으나 113명과 110명을 모집한 중등은 74명과 67명만 신청해 30여명씩 부족했다.

시·도교육청은 시일이 촉박하게 추진돼 홍보부족과 상당수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10월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해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교통약자 전용택시

광주시, 3대 추가 도입

광주시가 최근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3대를 추가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모두 15대로 늘었으며, 시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 오는 9월까지 5대를 추가 도입해 모두 20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승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지난해 10월 8대로 운영을 시작해 올해 2월 4대를 증차해 모두 12대로 운영돼 왔으며, 5월 말까지 모두 1만5천677명, 1일 평균 65명의 장애인과 노인이 이용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대병원 광주 첫 '외국인환자 유치 병원' 지정

조선대병원이 최근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섰다. 조선대병원 1층 고객지원센터 옆에 외국인 진료지원실을 개설하고, 여기에 외국인 전담 통역사 2명을 상주시켰다.

이 같은 외국인 전문 진료시스템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접수에서부터 진료, 수납, 검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일대일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조선대병원은 '의료관광'을 오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수도권 병원을 찾고 있지만 점차 진료 환경이 쾌적한 지역 의료기관에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에 맞춰 외국인 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 여성들이 급증하면서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는 이들이 늘고 있어 환자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희홍기자 cha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우실 것입니다 2. 보실 것입니다 3. 즐기실 것입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충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리산점 (063) 851-2422

www.kjhr.com

조이 여행사

234-3222

여행사 소개

여행 상품 소개

여행 상품 소개

여행 상품 소개

제주 2박3일 패키지 여행

98,000

7/19, 7/22

179,000

6/23

일본 - 크루즈 여행

카멜리아로 떠나는 큐슈 온천 여행

단 1회 출발일 6/29

239,000 (빌라함본도)

대야고스힐리로 떠나는 대야도 여행

단 1회 출발일 6/25

319,000